



# 제22차 해외어촌어항조사를 마치고



임 철 | (주)건일엔지니어링 부장

▲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번화가)

**제22차** 조사단은 해외 선진국의 어촌어항 현황과 시책 및 정비와 환경실태를 직접 두로 살펴봄으로써 어촌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발전과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코자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각시도 어촌어항관련 공무원과 기술용역사 임직원 등 각계인사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어촌어항개발을 위한 기술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9박 10일간의 여정에 올랐다.

조사단의 일정은 6월 12일 일본의 타루미 어항을 시작으로 마루야마어항, 유럽 영국의 브라이튼 마리나, 독일의 함부르크항, 브레머하펜, 네덜란드의 쉬베니겐항, 덴헬달항을 돌아보고 오는 일정이었다.

**일정 첫날인 6월 12일**은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타루미어항을 방문했다.

타루미어항의 첫인상은 어항시설, 관광시설, 마리나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조화로운 향이구나 하는 느낌이다. 20차 조사단도 시찰했던 어항을 다시 방문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효고현과 고베시에서 심혈을 기울인 중점프로젝트의 하나인 Marine Pia(동서:1.2km, 남북:300m)를 기존의 어항 왼쪽에 조성하여 수산물 가공, 요리, 판매시설 등을 유지하고 별도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생산, 대규모의 김양식업을 통해 어장, 어항, 어촌, 관광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다기능 어항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마린피아를 방문한 조사단은 일본의 관광레저산업의 발전과 현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린피아는 어선과 plezier보트를 분리 수용함에 따라 어항시설의 적정관리 및 건전한 해양 레크레이션의 보급을 주도하고 워터프런트 정비와 어메니티(amenity) 공간의 정비, 유어선 안벽의 공설, 컨벤션, 커뮤니케이션 및 체재형 시설의 정비를 통해 새로운 해양레크레이션 및 리조트 거점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황을 볼때 국내 어촌어항에도 관광특구 또는 마리나 특구 등의 지정을 통한 민자유치, 배후부지 개발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타루미어항의 마리나시설과 Factory Outlet



마루아마항의 낚시공원



영국여왕의 근위병 교대식

제22차 해외어촌여행조사를 마치고

### 둘째날 6월 13일

우리는 미나미 아와지에 있는 마루아마어항을 방문했다.

마루아마어항은 나루토 해협에 접하고 있으며 돛, 광어, 미역 등이 많이 잡히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계선시설이 부족하여 물양장, 방파제의 정비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미역 양식의 효율화를 위해서 미역어장의 인근에서 브포트가 건설되었으며, 「교류정비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의 활성화와 어촌·도시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전망광장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인근에 바다낚시 공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낚시공원은 나루토해협에 접한 마루아마 어항내의 벤덴지마를 낚시터로 조성하였다. 아치형의 다리를 건너 섬안 산책길을 지나 낚시대로 도착하게 되면 석양도 아름답고 낚시를 하지 않는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스포트를 즐길 수 있다. 어민과 낚시, 레저관광객 등과의 조화 및 어업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바다를 지키고 수산자원의 배양을 수행하고 풍요로운 자연속에서 낚시 애호가와 그 가족 등이 질서있고 안전하게 쾌적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다.

어족자원의 확보를 위해 어초블록을 설치하였는데 기와를 활용한 어초블록이라 한다. 이는 미나미아와지가 예전부터 기와를 많이 생산하던 곳이라 근래의 기와수요 감소에 따른 지역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도였다.

벤덴지마를 둘러싼 낚시공원을 돌아보니 넓은 바다와 大鳴門橋, 마루아마항이 한눈에 보인다. 우리 어항에도 친수공간 조성시 낚시공원을 설치하고 가족중심의 휴양지로 개발을 도모하면 지역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후에는 오사카로 이동하여 오사카성, 신사이바시, 도톤보리변화가 등을 둘러보았다.

### 셋째날 6월 14일

아쉬운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셋째 날 인천공항을 통해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총 12시간여가 소요되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러 간다는 설레임 속에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시 눈을 붙였다. 오랜 시간이 흘러 영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런던은 수많은 녹지와 공원으로 둘러 쌓여 있었다. 히드로 공항을 통해 드디어 영국에 입국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히드로공항은 3분마다 한대씩 비행기가 착륙한다고 한다. 인천공항은 10분정도 걸린다고 했던가? 아차 하는 순간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넷째날은 공식일정이 없어 런던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탐방하였다. 영국 여왕이 살고 있다는 버킹검궁전에 들러보니 마침 근위병 교대식 시간에 맞춰 도착해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 걸프전에 용맹을 떨쳤던 공정단 소속의 영국 최정예 부대가 왕실 경호를 담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네 군인보다 절도 있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멋을 한껏 부린 복장들과 모자, 자연스러움 등이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한다는 영국풍을 대변하는 듯 해서 나름대로 볼만했다. 그리고 런던 시민의 휴식처인 하이드 파크, 국회의사당의 유명한 시계탑 빅벤, 시내중심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넬슨제독동상이 높은 곳에 서있다,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대영 박물관, 템즈강의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브릿지 광장-맞은편에 수많은 영혼이 깃들여 있는 단두대로 유명한 런던타워가 보인다.-을 둘러 보았다.

유럽 여행 동안 내내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 하나.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풍경이 왜 우중충하고 딱딱한 시멘트 건물 일색이어야 하는지? 거리를 따라 곳곳에 즐비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도시 전체를 관광 상품화시키고 있는 유럽인들의 문화의식이 얼마큼 정도로 부럽기만 했다.

다섯째날 브라이튼으로 이동 브라이튼 마리나에 도착했다.

브라이튼 마리나는 1842년 항구개발계획을 세워 진행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영국국토의 남해안 일부분에서 제공되는 천연항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은 14세기부터 지금까지 항구로서 존재하여 왔다. 이곳은 영국 도시 부근에 위치하고, 심지어 마차가 있었던 시기에도 좋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번창하고 있는 농어촌이 존재





브라이트 마라나 전경

하고 있다. 도시에서 항만시설 부족은 수년 넘게 적당한 항구의 건설에 대한 많은 제안을 가져 왔다. 1832년에 체인 피어가 건설되었고, 1830년 캡틴 브라운이 방파제로서 초크로 구조물 안을 채운 체인 피어를 만드려는 제안을 시도 하였으나 이 아이디어는 비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사라졌다. 70년대 초반 로컬기업인 헨리코헨 요트가 항구 건설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은행과 공적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1,600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브라이트 마라나의 배면은 깎아놓은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있고, 배후부지는 상업 및 주택가로 개발하여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었다. 주택가에서 바로 요트에 승선할 수 있게 내항수로를 만들고 외항과는 갑문으로 막아 내항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마리나시설과 배후의 주거단지는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조만간 대형 마리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리라 보여진다.

오후에는 다시 히드로공항을 출발 독일의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다.

**여섯째날**, 일정상 어항시찰은 없었으나 함부르크 문화탐방을 하면서 엘베강에 있는 함부르크항을 방문하였다. 조수간만의 차가 3m정도밖에 되지 않는 함부르크항은 엘베강을 거슬러 올라온 11,000톤 미만의 배가 정박할 수 있다. 한달에 약 650척의 배가 출항한다고 하니 월 1,000척 이상의 배가 드나드는 셈이다.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함부르크항을 둘러보는데 한바퀴 돌아오는데 한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했다.

**6월 18일** 조사단은 브레머 하펜으로 이동하였다. 독일 남부의 브레멘항은 2007년 491만 TEU를 처리하며, 2006년 대비 10.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유무역도시로서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항만은 2002년 1월부터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관리체제에서 민간체제로 전환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주요지역에 대한 물류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브레멘항은 크게 브레멘과 브레머 하펜으로 구성되어, 컨테이너터미널은 주로 브레머하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외해와 바로 연계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건축경향은 기존의 건축물 외형을 유지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데 때로는 그 비용이 신규건축비용을 초과하기도 한다.

브레머하펜에서도 수산물 가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상가로, 철도역사를 극장, 아쿠아리움, 스튜디오(요리 강습)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시설계획시 초기투자비가 더 소요되어도 보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상점이 될수있는 건축물을 계획하여 관광의 명소로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6월 19일

오늘은 공식방문 일정이 없어 암스테르담 문화탐방을 가졌다. 먼저 담 광장을 둘러보았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담 광장은 원래는 암스테르담 중심부를 흐르는 암스텔강의 둑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대비, 도시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13세기에 만들어 졌다. 지금은 왕궁, 신 교회, 아주 높은 전쟁기념탑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담 터소의 왁스인형박물관 등이 이 주변을 메우고 있다. 또, 거리의 예술가들과 60년대에 유명했던 담광장 히피들, 많은 카페들로 인해 암스테르담에서 명소가 되었다. 담광장을 둘러본후 풍차촌으로 향했다. 네덜란드하면 떠오르는 풍차를 만나러 잔제스스칸스 마을에 도착하니 주변풍경은 여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한가로운 농촌마을이다. 마을로 들어서니 한 남자가 한사람 한사람 사진을 찍고 있다. 들어설 때 찍은 사진을 나갈 때 인화해서 5유로에 판다고 한다. 나올 때



수산물 가공장 리모델링한 상점

보니 스냅사진으로 찍었는데도 잘 나온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다. 이 마을에는 또 네덜란드 고유 나막신을 만드는 크롭펜 작업장도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에게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은 물론 네덜란드 사람인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을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러나라 말을 잘 배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즐거운 마음이다.


우리는 다시 네덜란드 행정의 중심지인 헤이그로 이동 이준열사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준열사는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형화회의에 공중의 밀령으로 이상설, 이위종등과 합류, 헤이그에 도착했으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에 올분을 참지 못하고 할복한 것으로 국사시간에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고혈압 등 합병증 또는 사인을 알 수 없이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다.

### 6월 20일

오늘은 오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상 5시에 기상하여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다. 버스에서 도시락으로 시장기를 달래고 쉬베니겐항으로 출발 7시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경매시장이어서 인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쉬베니겐항은 13세기초부터 어항으로 사용하였으며 1897년 태풍피해 후 1904년에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원래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면서 네덜란드 최고의 여름 휴양 관광지가 되었다. 헤이그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는 해안도로를 따라 해수욕장을 조성하여 넓은 해변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네덜란드 청어잡이 어선단이 대부분 기항하고 있는 쉬베니겐의 어류 경매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일행은 다시 덴헬더어항을 시찰하기위해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후 도착하였다. 전통적으로 덴헬더어항은 현대적인 어선들이 정박하는 항구였다. 아이셀호 서쪽의 반도 북단에 위치한 군항도시로, 북해에 접해 있으며, 마르스디프 해협을 사이에 두고 텍셀섬과 마주보고 있다. 이곳에는 약13km에 이르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어 도시를 조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중요한 해군기지로 해군영사 기상관측소 등이 있어 항을 직접 거닐며 시찰할 수는 없었고 단지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007년 1월 1일 덴헬더항구는 내·외의 수산물 경매장들을 통합하여 Hollands Noorden이란 새로운 경매시장을 만들었다. 이 경매장의 경매방식은 쉬베니겐어항의 경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방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타항의 입찰정보를 확인하며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저가나 고가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제로 경매회사에서 회비를 받고 생산가격이 생선 종류별로 정해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생선을 폐기하고 최저가격을 어민에게 보상해 주고 있다.

이는 어민들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으로 이러한 경매방식을 우리 어촌어항에 적용하면 어민의 소득 증가와 최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9박 10일이라는 어찌보면 짧은 기간동안 해외 선진 어항을 보고 배운다는것이 무리였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외국 어항에 대한 개발 및 환경정책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꼈다.

현재 우리 어촌의 실정은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유가불안에 따른 출어비용의 증가 등 날로 악화되는시점이다. 이런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항을 어촌과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문화, 관광시설을 겸비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건설하여 지역특성과 연계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한국어로 나막신 제작과정을 설명 중



전자입찰 경매장